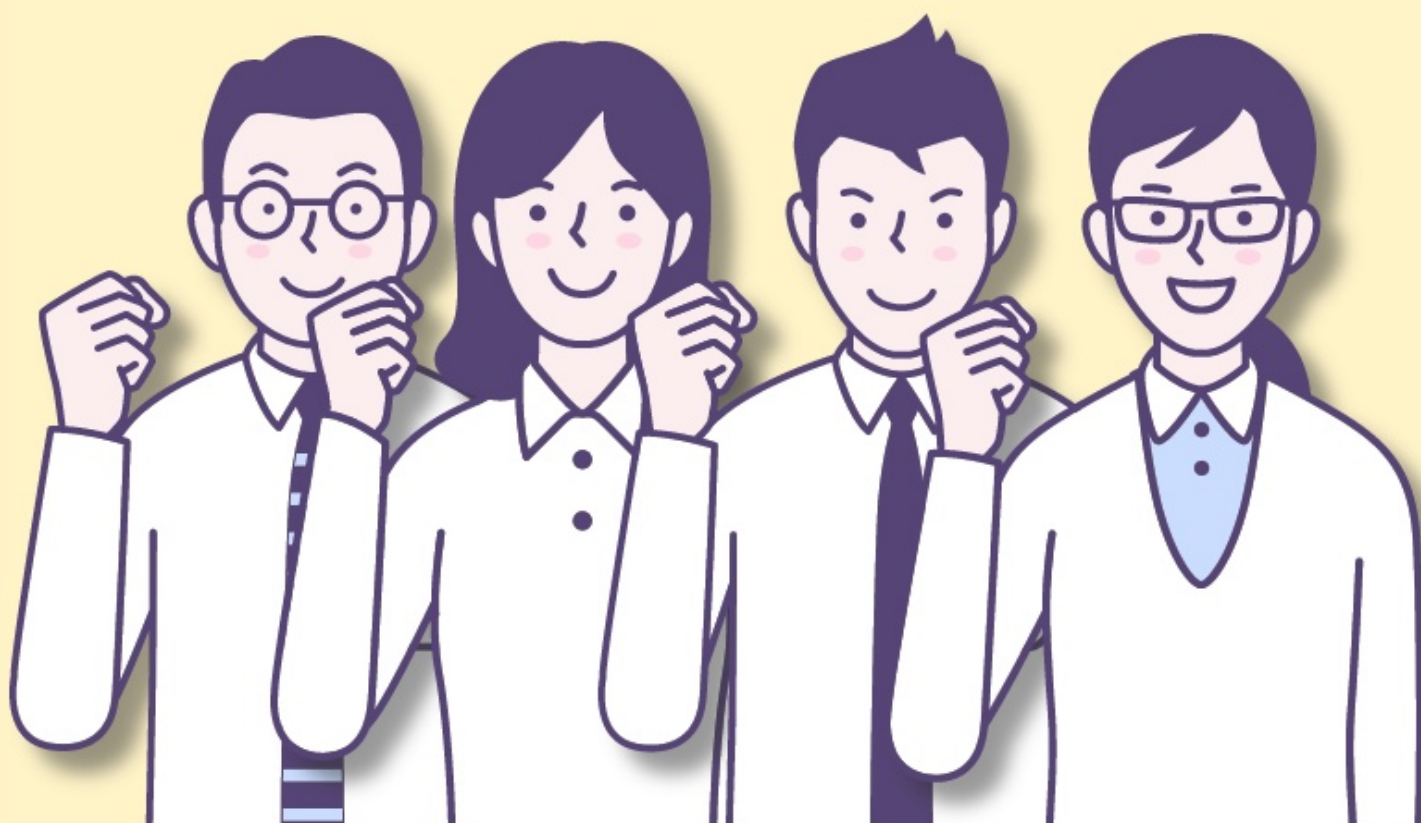


2020 하반기

서천군 적극행정 우수사례





01. 장항화물선 노선을 폐지하여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 및 신규 문화·관광 거점 기반 마련

□ (추진배경)

- 제련산업 등 지역산업 쇠퇴로 인한 장항 지역 성장동력 감소
- 철도화물 물동량 감소로 인한 철도기능 상실
- 신성장 동력 마련 위한 장항화물선 폐선 및 재개발 주민 강력 희망



□ (주요성과)

- 장항화물선 전용철도(1.2km) 및 국가선로(4.2km) 폐선 완료
- 장항화물역 일원 철도부지 복합문화테마지구 조성 기반 마련
(사업비 총 110억원 확보)



관광축제과



정희석



02. 전국최초! 감정적 손실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혁신!

□ (추진배경)

- 주거환경개선사업, 보상협의 과정에서 주민과 마찰로 인한 사업 목적 상실
- 부정확한 정보로 막연한 불안감 조성, 행정의 불신 초래



□ (주요성과)

- 주거환경개선사업 적극행정으로 사업기간 1/5 단축
- 금전적 손실 보상을 넘어선 감정적 손실 보상 (인생샷, 인생 스토리북 등 제작)
- 사전 보상협의로 강제수용 “無”
- 주거 취약 구역 →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



문화진흥과



김미선



03. 폐 건축물과 고물상의 화려한 변신!

□ (추진배경)

- 장항읍 원수리에 입지한 사회복지시설과 주거단지 주변에 폐건축물과 고물상이 위치하여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생활환경과 도시경관저해로 지속적 민원 발생



□ (주요성과)

- 고물상과 방치된 폐건물이 있던 공간을 꽃과 나무, 사람이 어우러진 작은 도시공원(연안공원)으로 변신
- 주민들에게 산책로 및 휴게공간 조성



공공시설사업소



허정미



04. 서천군 도시재생, 사람과 공간을 이어 상생하는 지역을 만든다.

□ (추진배경)

- 2018년 1월, 도시재생 전담팀 신설,
2019년 12월, 전략계획 승인 완료
-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필요



□ (주요성과)

-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, 총 사업 177억원 확보
- 군사리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사업 공모 선정, 시범사업 추진
-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로 지역민의 의식 성장



도시건축과



김석정



05. 서천군 지역농업인 간 갈등해결과 공존

□ (추진배경)

- 시장개방화에 따른 쌀산업의 다수확 → **미질과 안전성 소비자 요구**
- 농업정책의 큰 변화와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
서천군 농업인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갈등 고조



□ (주요성과)

- 서래야 농업단지의 정착에 따른 서천쌀의 브랜드화 성공으로
일반 관행쌀도 동반상승
- 의식교육, 농가지원, 유대관계 확립 등으로 상호신뢰 확보



농정과



김승언